

【논문】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정 성 훈

【주제분류】 사회철학, 도시인문학, 도시사회학

【주요어】 도시공동체, 도시마을, 성미산마을, 공동육아, 친밀관계, 친밀성, 낭만적 사랑, 공공성

【요약문】 이 글은 현대 도시의 삶에서 형성된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을 옹호하면서, 이러한 개체성을 보완하는 공동체의 유형을 ‘친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친밀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자 친밀공동체들 스스로의 생산물이기도 한 ‘도시마을’이라는 공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친밀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집단은 1990년대 중반 공동육아에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기존의 다른 도시공동체들과 달리 개체성에 기초한 자발적 협동으로 전인격적 관계를 실현하였다. 낭만적 사랑으로 대표되어 왔던 친밀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친밀공동체는 사랑을 보완하는 우정의 관계망으로서 익명적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자기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준다.

친밀공동체론은 사회 전체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그가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서 공동임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사회는 환상이거나 아니면 상상된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전체주의 사회이다. 그렇다고 해서 친밀공동체론이 사회주의적 기획들과 대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친밀공동체는 공공 영역에서 자본주의적인 사적 영역에 맞서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흔히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친밀관계들의 확장은 ‘공적 영역’을 강조해온 사회주의적 기획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상승시키는 관계를 맺는다면 ‘자본주의적인 사적 영역’을 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I. 서론

현대 도시에서는 ‘이웃’, ‘공동체’, ‘마을’과 같은 말들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들이 사라지고 있다. 도시인의 삶에서는 직장생활, 소비생활 등 서로 누구인지 잘 몰라도 성립할 수 있는 익명적 관계들이 우위를 차지한다. 도시인들은 이런 관계들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고독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통해, 혹은 연애, 가족, 친구 등의 친밀관계들을 통해 풀어나간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족을 넘어선 이웃 관계를 통해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현대화 과정의 사회적 관계 맺음에서도 여전히 혈연과 지연이 강하게 작용했던 한국에서도 점차 도시의 삶은 이런 방향으로 변해왔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며, 가족과 직장 이외에 자신이 구성원임을 강하게 느끼는 사회적 집단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도시적 삶의 특징은 흔히 ‘개인주의’라 불린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을 비판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후의 서술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글은 오히려 익명적 관계들이 우위에 있는 현대 사회로 인해 가능해진 개인주의를 옹호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체성을 보완하는 공동체의 유형을 ‘친밀공동체(intimate communities, Intimgemeinschaften)’라는 이름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친밀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자 친밀공동체들 스스로의 생산물이기도 한 ‘도시마을’이라는 공간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익명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삶과 양립하는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친밀공동체론은 사회 전체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그가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서 공동임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사회는 환상이거나 아니면 상상된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전체주의 사회이다. 이에 관해서는 III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친밀공동체론이 사회주의적 기획들과 대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V에서 친밀성과 공공성의 상호관계를 논할 때 밝히겠지만, 친밀공동체는 공공 영역에서 자본주의적인 사적 영역에 맞서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흔히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친밀관계들의 확장이 ‘공적 영역’을 강조해온 사회주의적 기획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상승시키는 관계를 맺는다면 ‘자본주의적인 사적 영역’을 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과제이다.

필자가 친밀공동체라 부를 사회적 관계들과 이 관계들의 공간적 형태인 도시마을은 이념적 지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에 현존하며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대도시들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고 있는 현실 집단이요, 현실 공간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예부터 있었던 여러 관계들 및 공간들과 구별되지 않는 명칭들, 즉 ‘도시공동체’, ‘동네’, ‘마을’ 등의 막연한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 출발점이 된 구체적 목적에 따라 ‘터전’, ‘교육마을’, ‘학교’, ‘매장’, ‘극장’ 등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공동체와 마을이 기존의 것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고 있지만, 이 관심은 아직 ‘연구’라고 부를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참여 관찰의 성격을 띠는 몇몇 논문, 보고서, 서적, 보도 등이 있지만¹⁾, 개념적 작업은 부족한 상황이다.²⁾ 이 논문은 공동체와 친밀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토대로 이런 자생적 관심들을 연구의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 1) 이 글의 II에서 인용될 여러 참고문헌들이 그 사례들인데, 그 문헌들에서 공동체 개념을 규정하는 작업을 비롯한 개념적 작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 2) 필자는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대상(Objekte)’이라 부르며, ‘특정한 반대개념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개념(Begriffe)’이라고 부르는 루만의 구별법에 따라(N. Luhmann, *Das Recht der Gesellschaft*, 26쪽 참조), 막연한 지칭 대상이 아니라 뚜렷한 반대항을 갖는 개념을 정식화하는 작업을 ‘개념적 작업’이라 부른다. 그래서 친밀공동체는 현실적/상상된, 자발적/비자발적 등의 구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II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도시들에서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 혹은 마을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공동체와 마을이 기존의 것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차별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우선 III에서는 여러 공동체 유형에 대한 개념적 구별을 시도한 후 친밀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 작업을 기반으로 IV에서는 낭만적 사랑으로 대표되어 온 친밀관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친밀공동체가 갖는 의의를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V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적 영역의 확장이 범사회적 공공성의 강화와 상호 상승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II.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공동체의 특징

산업화와 함께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성장한 한국의 대도시에는 여러 유형의 지역공동체들이 있었다. 단순한 이웃사촌부터 경제적 목적을 갖는 계모임,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 모임, 종교 조직을 매개로 한 신앙 모임, 취미활동이나 지역자치운동과 연관된 주부모임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지역공동체들은 주로 전업 가정주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직업생활을 하는 남성들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주변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주부 중심의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매우 긴밀한 전인격적 관계를 맺는 경우, 그 관계는 대개 불평등한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지위³⁾나 나이에 따른 위계질서를 갖고 있거나 주도자와 순종자가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익명적 도시사회 속에서 충분히 개인화되지 않은 사람들, 따라서 개체성에 기초해 평등한 관계를 맺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3) 군인 거주지역의 경우처럼 남편들의 지위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문화센터를 매개로 한 취미모임이나 지방자치나 녹색소비를 위한 모임 등 비교적 최근에 확산된 것들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다. 하지만 모임의 특수 목적만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느슨한 관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개체성을 기초로 한 모임들은 공동체라 불리기에는 대체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기존의 도시공동체들과 달리,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개체성을 전제로 그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실현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긴밀한 전인격적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울과 그 주변 신도시에서 이런 공동체들은 주로 공동육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1994년 8월, 마포구 성산동 우리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확산된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은 육아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학부모 모임 같은 것과 큰 차별성이 없다. 즉 육아라는 개인들의 ‘필요’⁴⁾가 만들어낸 도구적 공동체로 출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동육아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개체성에 기초한 평등한 관계를 훈련받은 고학력 맞벌이 부부들의 참여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⁵⁾ 그리고 조합원들이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합 운영도 하고 ‘아마’⁶⁾라 불리는 교사 혹은 직원의 역할도 한다.⁷⁾ 또한 부모 교육과 친목 행사, 친환경 먹을거리 공동구매 등의 장터 운영, 취미소모임 등을 통해 육아공동체를 넘어선 생

4) 성미산마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유창복은 “마을의 시초가 된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그 이후 마을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과 사업은 어느 것 하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회고한다. 유창복,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 마을하자!』, 『진보평론』 제43호, 68쪽.

5) 대부분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마’라 불리는 어린이집 활동을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의무로 부여하고 있으며, 조합의 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운영기구에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6) ‘아빠와 엄마’의 준말로써,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교사 역할을 대신할 때 불리게 되는 일반 명칭이다.

7) 교육아마, 주방아마, 운전아마, 행사아마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활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된다.⁸⁾

이렇게 공동육아는 그 발전 과정에서 육아라는 특수 목적을 넘어서 개인들 간의 긴밀한 관계들을 형성함으로써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더 나아가 ‘대안적 가족 형태’로까지 주목받게 된다.⁹⁾ 이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비롯한 가족 내부의 여러 문제들까지 다른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며, 다른 가족들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부부관계를 위한 자극을 받는다.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했던 아빠가 틈나는 대로 어린이집 일을 돕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아빠로 변화한다. 출산과 함께 휴직한 후 남편에게 바가지만 굶던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애환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을 매개로 마을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활동을 열어나간다. 이런 친교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척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이웃의 조합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¹⁰⁾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친밀관계라 불릴 수 있는 전인격적 관계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육아가 아무리 육아공동체를 넘어선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육아라는 특수한 목적에 종속되어 있는 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부모들도 조합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육아는 여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의 설립으로 이어졌고¹¹⁾, 마포와 과천 등에서는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다. 육아공동체는 교육공동체로 발전했고, 그에 따라 부모들의 친밀관계도 지속되고 깊어졌다.

8) 이부미,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179쪽 이하 참조.

9) 류경희, 김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2호, 119-151쪽.

10) 류경희, 김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11호, 198쪽.

11)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의 연합단체인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약칭은 ‘공공교’)에는 현재 19개의 방과후교실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교 소속이 아닌 협동조합형 방과후도 여럿 있다.

이렇게 육아공동체가 교육공동체로 이어져 친밀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된 지역들에서는 다른 목적들을 갖는 협동조합들과 공간들도 생겨났다. 친환경 먹을거리의 필요 때문에 생긴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해 반찬가게, 식당 등 경제적 성격을 갖는 조합들과 매장들이 생겼고, 극장, 방송국 등의 문화예술공간과 이를 이용한 동아리들이 지역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났다. 특히 공동육아가 처음 시작된 마포는 개발사업으로부터 성미산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육아 및 교육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까지 결합되면서¹²⁾, 육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넘어선 여러 협동조합들과 공간들이 가장 많이 생겨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성미산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¹³⁾

과천의 경우, 공동육아 터전, 방과후, 대안학교, 협동조합형 가게, 공방 등이 특정한 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외곽 지역에 넓게 걸쳐 있기 때문에 마을이라고는 잘 불리지 않는다. 하지만 문원동의 도시형 대안학교가 스스로를 <무지개교육마을>이라 부르고 여러 생활공동체의 허브로 기능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성미산과 비슷한 마을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성미산마을의 형성 과정과 마을의 전망을 다룬 유창복의 글을 살펴보면, 공동육아에서 형성된 친밀관계를 기반으로 성장한 공동체가 기존의 도시공동체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파악할 수 있다. 유창복은 성미산마을에서 착수된 수많은 사업들이 성공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갖게 된 자신감을 ‘마을신화’라 부르면서, 이 신화는 “자발성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발성의 필요조건을 “개인의 필

- 12) 공동육아 부모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포두레생협의 조합원은 성미산지킴이 투쟁을 거치면서 마포구 전체 주민으로 확산되었고, 이 투쟁 과정에 결합한 노인들은 마을축제를 성사시키고 마을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한 축이 되었다.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47쪽 이하, 167쪽 이하, 214쪽 이하 참조.
- 13) 성미산마을의 형성 과정과 현재 이 마을에 있는 조직들에 대한 개요는 문치웅,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제1회 인간도시포럼 자료집 『인간도시만들기, 성미산공동체에서 배우다!』, 7쪽 이하 참조.

요와 욕구”로, 충분조건을 “협동”으로 규정한다. 전자의 인식이 협동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후자의 인식이 협동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협동 시도로 이어져 “자발성의 지속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 즉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개인들이 공동체적 협동이야말로 그러한 개인적 필요의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믿게 됨(신화)으로써, 마을의 형성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창복은 성미산마을의 이미지를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나로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이라고 표현한다.¹⁵⁾ 개체성을 죽이는 협동이 아니라 개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협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19세기의 여러 사회주의자들이 썼던 말인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연합”을 떠올리게 한다.¹⁶⁾

그런데 현대 도시의 삶에서 이렇게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 다른 직장,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입장,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개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협동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용인하는 기존의 다른 도시공동체들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강하게 가졌고, 그로 인해 관계 속에서 내가 나임을 확인하는 친밀관계¹⁷⁾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공동체는 익명적인 도시적 삶의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근본적 변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창복이 갖고 있는 마을이미지는 과장된 것인가, 아니면 고학력 중산층이 주도했고 마을 형성 과정에서 힘겨운 투쟁 과정을

14) 유창복,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 마을하자!』, 『진보평론』 제43호, 80-81쪽.

15) 유창복, 위의 글, 97쪽.

16) 프루동, 슈티르너, 맑스 등에서 발견된다. 맑스의 경우, 『공산주의 당 선언』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라고 표현했다. K.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권, 421쪽.

17) 뒤에서 보겠지만, 현대 사회의 여러 익명적 관계들이 역할(직원, 교사, 군인 등)로서의 나를 확인시켜 주는 반면에, 친밀관계는 나를 나로서 확인시켜 주는 관계라는 특징을 갖는다.

거친 성미산에서만 잠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외적 현상인가?¹⁸⁾ 성미산마을을 다룬 문헌들과 언론 보도의 묘사를 보면¹⁹⁾, 유창복의 마을 이미지를 주관적 과장이라고 폄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과천, 안산 등 여러 지역에서 특별한 투쟁을 경험하지 않고도 성미산마을과 비슷한 마을 형성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현상이라 보기도 어렵다. 고학력 중산층에 제한된 가능성이라는 비판은 중요한 쟁점인데, 이후 이런 공동체들의 확산 전망과 관련해 뒤에서 다루겠다.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개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도 특수한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협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관계가 전인격적이되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다. 전인격성과 제한성은 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말 같지만, 도시적 삶의 조건에서 전인격적 관계는 오직 제한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도시인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신을 ‘개체적 인격’이 아닌 ‘역할’로만 표현할 수 있다. 즉 나로서가 아니라 학생, 소비자, 점원, 소비자 등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특정한 역할에 한정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맺을 수 있는 전인격적 관계는 극히 제한된다. 대개 이런 관계는 연인, 아주 친한 친구, 가족 등의 범위로 제한되는데, 이런 친밀관계들이 확장됨으로써 성미산마을과 같은 도시마을에서 친밀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시마을에는 마을학교나 마을기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평일 낮에는 마을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또한 유창복이 마을의 적정한 규모를 “아이를 혼자 다녀오게 할 수 있는 거리, 큰 차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범위, 걸어서 마실 다녀올 수 있는 정도”²⁰⁾ 등으로 표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친밀

-
- 18) 2011년 1월 20일, 인간도시컨센서스와 민주당 김진에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인간도시포럼에서는 성미산 마을의 예외적 특수성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Pressian 2011년 1월 23일자 기사, “오늘은 옆집 가서 밥 먹고 자라. 성미산 마을, 도시공동체의 한계와 가능성은?”; Oh my news 2011년 1월 21일자 기사, “막개발 시대, 성미산공동체에서 무얼 배울까” 참조.
- 19)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139쪽 이하; 중앙일보 4월 1일자 기사 “[week&] 성미산 행복 마을”; Pressian 2011년 1월 23일자 기사, “오늘은 옆집 가서 밥 먹고 자라. 성미산 마을, 도시공동체의 한계와 가능성은?” 등 참조.

공동체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이다.

도시마을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연합 혹은 협동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한 개인의 삶의 시간 중 평일 저녁의 일부와 주말의 일부만이 공동체를 위해 쓰이는 시간이다. 또한 그러한 전인격적 관계는 직장이 있는 도심을 비롯한 대도시 전체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린이집과 대안학교의 터전, 생협 매장, 마을카페 등 몇몇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된다. 이렇듯 도시마을에서 개체성에 기초한 전인격적 관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도시의 익명적이며 분화된 삶과 양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본 친밀공동체가 기존의 도시공동체들 및 이상적 공동체 사회관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표로 정리해보고, 이 공동체 유형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차례로 정식화해보겠다.

	기존공동체1 (위계적 모델)	기존공동체2 (평등한 모델)	친밀공동체	이념적 공동체사회
개체성과 자발성	약함	강함	강함	강함
전인격적인 긴밀한 관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강함	약함	강함	강함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	시간적 제한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공간적으로는 강하게 제한됨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강하게 제한됨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되지만 기존공동체2보다 는 덜 제한됨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제한적임
관여자들의 성비(性比)	여성이 대부분	여성 비율이 높음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경우는 많지만, 비교적 남성 비율도 높음	여남이 동등한 비율

<p>익명적 도시사회와의 양립 가능성</p>	<p>양립 가능하나 가정주부에 제한됨</p>	<p>양립 가능</p>	<p>양립 가능하나 특정한 공간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관여자들의 자발적 노력 필요</p>	<p>양립 불가능, 근본적 변혁 필요</p>
----------------------------------	----------------------------------	--------------	---	----------------------------------

III. 친밀공동체의 개념

‘공동체(community, Gemeinschaft)’라는 단어는 매우 폭넓게 쓰인다. 가족, 동아리, 동호회, 마을 같은 작은 단위들뿐 아니라 학교, 기업, 지방, 국가, 민족, 심지어 인류나 지구 전체까지도 공동체라 불린다. 과연 ‘공동성’이 있는 단위인지 의문스러운 공식 조직에 대해서도 쓰이고 심지어 세계사회에 대해서도 쓰이는 폭넓은 외연을 갖는 단어인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친밀공동체’라 부르려고 하는 단위는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공동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에 가까운 단위이다. 여기서는 현실적 공동체와 상상된 공동체의 구별, 자발적 공동체와 비자발적 공동체의 구별을 통해 우선 친밀공동체를 현실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로 분류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친밀성에 대한 학적 논의들을 살펴본 후 친밀공동체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하기에 그 공동성이 쉽게 현실적으로 확인되는 공동체와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공동성이 상상하기(imagining)의 산물인 단위들을 구별하고자 한다. 앤더슨은 민족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²¹⁾이라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앤더슨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대면관계의 범위를 넘어선 큰 마을도 이미

21) B.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25쪽.

상상된 것이라고 말하듯이,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는 민족뿐 아니라 학교, 기업, 학회 등 일정 규모 이상인 조직들과 도시, 지방 등의 단위들 또한 해당된다. 이런 상상된 공동체들과 달리 서로 잘 알고 있으며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자주 서로 만나는 공동체를 우리는 ‘현실적 공동체(actual communities)’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 공동체라고 해서 반드시 상상된 공동체보다 개인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을 위한 자기희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데올로기화될 경우, 후자의 상상하기가 개인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영향력을 개인들 사이에서 생기하는 현실적 공동성의 확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개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개체성과 무관하거나 개체성을 억압하는 비자발적 공동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현실적 공동체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가족, 친족관계, 이웃관계, 친구모임 등이며, 학교 전체는 아니지만 같은 반이나 같은 동아리, 작은 규모의 직장, 작은 규모의 학회나 동호회 등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공동체 중 상당수는 개인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것들이며, 나머지 것들의 경우 가입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탈퇴할 때까지 공식 결정에 의해 자발성이 강하게 억압당해야 하는 것들이다. 친족관계, 이웃관계, 같은 반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연애결혼에 의해 성립된 가족도 자식세대에게는 미리 주어져 있는 공동체들이다. 공동체주의자인 왈쩌(Michael Walzer)는 이런 공동체들을 “비자발적 공동체(involuntary associations)”라 부르면서, 이것들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²²⁾. 후자의 경우는 구성원

22) M. 왈쩌, 『자유주의와 자연 공동체』, 『자유주의를 넘어서』, 19쪽 이하 참조. ‘association’은 ‘연합’이나 ‘결사’로 번역되는 것이 관행이긴 하지만, ‘비자발적’이라는 수식어와 ‘연합’, ‘결사’ 등의 단어는 잘 호응되지 않는 듯하여 ‘공동체’로 번역한다. ‘비자발적 공동체’는 ‘자연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왈쩌는 비자발적 공동체와 자발적 공동체를 구별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격 유지가 공식 결정에 대한 복종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동체라기 보다는 ‘조직’에 가깝다.²³⁾ 친밀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관계를 맺는 활동 과정 전반에서 자발성에 대한 억압이 적을 뿐 아니라 그 유지를 위해 자발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동시에 자발적인 공동체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친밀공동체라 부를 수는 없다. 친밀공동체는 그 내부에 ‘친밀관계(intimate relations)’라 불릴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상 어법에서는 물론이고 학적 논의에서도 한국어 ‘친밀’은 너무 폭넓게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intimacy 혹은 Intimität의 발생에 관한 유럽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논의를 우선 살펴보겠다.

친밀관계 혹은 친밀영역이 현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야 비로소 등장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루만은 중세말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밀성이 어떻게 코드화되는지를 사랑의 의미론 변화를 통해 탐색하며²⁴⁾, 기든스 역시 친밀성의 변형 과정을 탐색하면서 신분적 제약과 재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운 낭만적 사랑을 출발점으로 삼는다.²⁵⁾ 부르주아 공공성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문예적 공공성과 결부되어 있는 사생활 영역을 탐구한 하버마스는 친밀하게 형성된 인간성의 영역이 ‘부르주아적 핵가족’과 함께 등장했다고 보며²⁶⁾, 아렌트는 고대의 ‘정치적인 공공 영역’을

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 역시 ‘비자발적/자발적’의 구별이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 순수하게 자유로운 선택은 환상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을 자각한 후에 선택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왈쩌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비자발적/자발적의 구별을 이용하고자 한다.

23) 조직은 구성원 자격 요건을 뚜렷히 하며 결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체계이다. 그래서 조직은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심리적 동기와 무관하게 결정에 종속될 것을 요구한다.

24) N.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이 책의 부제는 ‘친밀성의 코드화’이다.

25) A.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77쪽 이하 참조. 번역본의 제목은 원서의 부제이며, 이 책의 원제는 ‘친밀성의 변형(Transformation of Intimacy)’이다.

파괴하고 공공화된 사적 영역인 현대의 ‘사회적 영역’에 대립하는 새로운 ‘사생활’ 영역으로 친밀영역을 이해한다.²⁷⁾ 따라서 친밀성은 그저 가깝게 지내는 관계에 대해 붙일 수 있는 몰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구조 변동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은 조금씩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다. 아렌트는 친밀영역이 사회의 부상 및 (oikos라 불릴 수 있는 전통적) 가족의 쇠퇴와 함께 나타난 공간으로 이해하는데²⁸⁾, 그의 관심이 공공영역에 있기 때문인지 친밀영역 자체를 엄밀하게 정식화하고 있지는 않다. 하버마스 역시 친밀영역 자체의 의의보다는 그것이 출판시장 및 문예적 공공영역과 맺고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탐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밀영역을 ‘사랑의 공동체’, ‘휴머니티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교양의 공간’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주로 핵가족의 사생활 공간으로 이해한다. 공공영역과 친밀영역에 관한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푸코를 참조하여 친밀영역의 정치적 잠재성을 강조하는 사이토 준이치는 친밀영역을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관심에 의해 형성·유지”²⁹⁾되는 영역으로 규정한다.

기든스는 친밀성을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관계로 이해하는 듯 보이며, 남성중심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낭만적 사랑의 친밀성을 여남이 평등한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의 친밀성으로 변형시키고자 한다.³⁰⁾ 그리고 기든스의 친밀성 이해에 영향을 미친 루만은 친밀성을 가족으로 환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이나 섹슈얼리티로도 환원하지 않는다. 루만은 현대 사회로의 이행기에 친밀성의 코드화를 둘러싼 경주에서 사랑과 우정이 경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경주

26) J.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122-127쪽 참조.

27) H. 아렌트, 『인간의 조건』, 90-91쪽.

28) H. 아렌트, 『인간의 조건』, 92쪽.

29)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106쪽.

30) A. 기든스, 같은 책, 108쪽 이하.

에서 승리한 것이 섹슈얼리티를 포섭하고 가족의 형식을 갖춘 사랑의 의미론인 낭만적 사랑이라고 본다.³¹⁾

이런 견해들을 총괄해 보면, 친밀성은 한편에서는 신체적으로(생명, 몸, 섹슈얼리티 등) 규정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특징으로(사랑, 우정, 가족 등) 규정된다. 하지만 이런 외면적 규정만으로는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는 친밀성 개념의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더구나 이 개념이 왜 현대적인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추구는 현대 이전에 있었으며, 사랑, 우정, 가족 등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현대 이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familiar도 lovely도 friendly도 sexual도 아닌 intimate라는 단어가 쓰여야 하는 독자성이 밝혀져야만 친밀성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친밀성 개념의 독자성과 현대적 성격에 대한 비교적 뚜렷한 해명은 앞서 언급한 논자들 중 루만의 연구를 통해 접근해볼 수 있다. 루만은 친밀성의 코드화를 역사사회학적으로 탐구하면서 사랑이 우정을 누르고 섹슈얼리티와 가족을 포섭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동어반복을 이용하는 친밀성의 코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러한 코드화가 “인격적 개체성의 사회적 발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³²⁾, 그리고 이러한 개체성의 성립은 ‘기능적 분화’라는 현대 사회의 주된 분화형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루만에 따르면,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개체성은 초역사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격적 개체성(personal individuality)’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형성된 것이다.³³⁾

31) N. 루만, 같은 책, 126-127쪽. 루만은 우정이 섹슈얼리티라는 공생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밀관계로 독립분화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

32) N. 루만, 같은 책, 30쪽.

33)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는 G. 크네어 & A. 낫세이,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참조. 사회의 체계분화 형식들과 기능적 분화 형식에 관해서는 150쪽 이하 참조, 인격 개념에 관해서는 199쪽 이하 참조.

전통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한 가족과 가문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의 한 하위체계에만 속하게 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의 개체성을 사회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더 이상 사회의 하나의 부분체계에만 속할 수 없다.”³⁴⁾ 개인은 더 이상 미리 주어져 있는 정체성에 의지할 수 없으며, 자신을 야당 지지자로서(정치), 산업 노동자로서(경제), 기독교 신자로서(종교) 등등 여러 기능체계들에서의 역할들로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역할 정체성들 중 어떤 것도 자기 자신과 동일화될 수 없다. 역할로서 관찰되는 개인은 언제나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인격들과 비교될 수 있고 다른 인격들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적 준거점이 없는 ‘분화된 자기’는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기정체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은 혼자만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고독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내밀한 고유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자기의 추구는 역설에 부딪힌다. 일기 쓰거나 자기 성찰은 모두 타인이 쓴 책을 보고 모방한 것이다. ‘나는 나다’라는 동어반복의 추구는 모방된 수많은 술어로 대체되고(‘나는 고독한 산책자다’, ‘나는 초월자이다’ 등등), 그 술어들이 차례로 부정되는(‘고독한 산책자는 진짜 내가 아니다’, ‘초월자는 진짜 내가 아니다’ 등등) 역설에 이르게 된다. 개인은 이러한 역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개인들이 서로를 역할로서 인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자로 확인해주는 관계³⁵⁾,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것, 즉 내밀한 것³⁶⁾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관

34) N. Luhmann, “Individuum, Individualität, Individualismus”,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3권, 158쪽.

35) N. 루만, 『열정으로서의 사랑』, 39쪽.

36) intimate는 ‘내밀한’으로도 번역 가능하며,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intimacy를 ‘내밀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밀한 것을 커뮤니케

계를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친밀관계이다. 초기 현대에는 이러한 관계의 의미론을 소설이, 오늘날에는 영화와 음악이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토록 비개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관계들은 사랑의 의미론을 통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³⁷⁾

따라서 친밀관계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인격적 개체성을 추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성립되며,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한 내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자 하면서 서로를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으로 확인해주는 관계이다. 그러한 관계는 섹슈얼리티와 결합하기 쉽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친밀관계에 동반되기 쉬운 특징일 뿐 친밀성을 다른 개념들과 구별해주는 기준은 아니다.

이러한 친밀성 개념에 따라 우리는 일단 친밀공동체를 “현실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에 관여하는 인격들이 서로를 기능적 역할로서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유일무이한 세계를 가진 인격적 개인으로 서로를 확인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높은 공동체”라고 잠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중이 높다’는 표현은 연애관계와 달리 친밀공동체가 다수의 사람들 사이의 다수의 관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부의 모든 관계가 항상 친밀관계로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다는 것을 뜻한다.

IV. 친밀관계의 위기와 친밀공동체의 의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친밀관계의 예로는 주로 연애관계, 가족관계 등 둘만의 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만이 언급되어 왔다. 하버마스가 예로 드는 핵가족, 기든스가 예로 드는 낭만적 연애 혹은 합류적 연

이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를 표현할 때, ‘내밀관계’, ‘내밀공동체’ 등의 표현은 그리 적절해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친밀성’을 기본 번역어로 택하되, 그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표현할 때만 가끔 ‘내밀한 것’이라는 표현을 쓴다.

37) N. 루만, 같은 책, 22쪽 참조.

애, 루만이 예로 드는 우정과 연애는 모두 동일한 시점에는 주로 둘만의 관계이다. 친밀관계가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것과 관련해 루만은 인격적 관계들을 맺을 가능성의 확장은 비연격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의 증가와 달리 단순한 외연 확장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말한다. “각 개별 인간에게 그러한 외연 확장은 금방 과도한 요구로 인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인격적 계기는 외연적으로 확장될 수 없으며 단지 내포적으로 밀도가 높아질 수 있을 뿐”³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II에서 살펴본 도시마을에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를 ‘친밀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닐까? 함께 육아를 하고 함께 반찬을 만들고 함께 텃밭을 일구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관계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 부를 만큼 친한 사이, 그래서 루만이 우정이라 부른 관계만큼 친밀한 사이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사는 사이도 많다.

필자는 주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밀도 높은 관계인 친밀관계와 구별해 “기본적인 친밀관계들을 보완하면서 다수의 친밀관계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약화되고 강화되기를 반복하게 하는 관계망”을 ‘친밀공동체’로 규정하고자 하며, 친밀공동체의 기반구조이자 동시에 친밀공동체의 산물인 ‘도시마을’은 “이러한 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들을 포괄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³⁹⁾ 친밀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와 달리 필자가 소수의 관계보다 외연이 넓은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고자

38) N. 루만, 같은 책, 28쪽.

39) 사회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친밀공동체의 위상을 해명하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미룬다.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을 크게 상호작용, 조직, 사회의 세 가지 층위로 구별하고, 이와는 별도로 가족, 저항운동 등의 사회적 체계들의 특징을 다룬 바 있다. 친밀공동체론이 체계이론 진영에서 논의될 수 있으려면, 이 공동체가 가족이나 조직 등의 다른 사회적 체계들과 갖는 차별성과 관련성이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동체가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책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18세기 말 이후 친밀관계를 대표하게 된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은 열정적 사랑의 의미론이 섹슈얼리티를 포섭하고 “무제한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개체성을 포함”하고 “지속성에 대한 전망을 갖고 결혼과 화해”함으로써 성립되었다.⁴⁰⁾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 낭만적 사랑은 그 비현실성⁴¹⁾과 남성중심성⁴²⁾을 폭로당하며 젊은 세대의 성문화와 충돌한다.⁴³⁾ 그리고 개인적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섹스도 결혼도 아닌 친밀관계로서의 사랑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파트너를 찾아 그를 묶어둘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되며⁴⁴⁾, 개인들은 서로를 이해해나가는 끊임없는 상호침투를 지속할 만큼 끈질기지도 않게 되었고 한가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러한 친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든스는 “합류적 사랑”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합류적 사랑은 “동성애적 사랑에 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파트너 각자의 섹슈얼리티를 관계를 일궈가기 위해 꼭 협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여 사랑 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낭만적 사랑과 차이를 갖는다.⁴⁵⁾ 그리고 이러한 친밀성의 변형은 “개인적인 것의 철저한 민주화” 혹은 “성적 민주

40) N. 루만, 같은 책, 210쪽.

41) 둘만의 사랑이 갖는 시간적 한계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지적들과 높은 이혼율 통계가 낭만적 사랑의 비현실성을 폭로한다.

42) 낭만적 사랑은 남녀가 평등한 가정을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이상이 남성은 직장생활, 여성은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역할이 분담된 현실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을 무마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기든스는 “결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임노동을 남편의 영역으로 배당하고 아내에게는 가정을 배당한 성별 분업 덕분”이라고 말한다. A. 기든스, 같은 책, 88쪽.

43)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결혼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라 섹스와 사랑, 섹스와 결혼, 사랑과 결혼 사이의 동기화(synchronization)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44) N. 루만, 같은 책, 229쪽. 여기서 루만은 사랑이라는 코드의 형식이 ‘이상’에서 ‘역설’을 거쳐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45) A. 기든스, 같은 책, 110-111쪽.

주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⁴⁶⁾ 그런데 동성애로의 확장은 사랑이 처한 현재의 난점을 극복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애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낭만적 사랑에 내재된 남성중심성을 과연 둘만의 ‘협상’이나 ‘개인적인 것’ 혹은 ‘성적인 것’의 ‘민주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객관화될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과연 협상의 공정성이나 관계의 민주성을 측정할 지표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리고 엄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친밀 커뮤니케이션이 경제적 등가교환이나 정치적 평등주의의 수사에 의해 조절된다면, 이것은 친밀관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익명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추구되는 원칙이 어찌면 상당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관계에 침투한다면,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친밀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크리스티안 슐트는 “전략적 낭만”을 통한 “실용적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한다.⁴⁷⁾ 이 대안 역시 두 사람만의 관계에 한정된 대안이다. 그리고 열정과 실용성, 낭만과 객관적 시각 사이를 오가는 줄타기⁴⁸⁾를 과연 친밀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친밀성은 결국 거래나 전략일 뿐이라는 이차 관찰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합리적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친밀관계는 익명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대안들의 한계는 두 사람이 맺는 친밀관계의 변형만을 추구하며, 둘만의 관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합리적 협상, 민주화, 전략의 구사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애 및 섹슈얼리티를 결혼과 떼어놓음으로써 낭만적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지만, 친밀관계를 여전히 섹슈얼리티가 개입하는 연애관계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둘만의 관계가 아닌 차원에서의 대안을 고민할 수 없다.

친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인 친밀공동체는 둘만의 연애관계 혹은 부부관계에서의 대안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친밀

46) A. 기든스, 같은 책, 269쪽.

47) C. 슐트,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272쪽 이하.

48) C. 슐트, 같은 책, 300쪽.

관계를 보완하고 혁신하고 지원해주는 ‘우정의 네트워크’이다. 루만이 친밀성의 코드화를 둘러싼 경쟁에서 섹슈얼리티로 인해 사랑에게 패퇴한 우정, 오늘날에도 자주 사랑과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인 우정을 사랑과 상호 상승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친밀공동체이다.

II에서 보았듯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부들은 그들 사이의 우정을 통해 부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부부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둘만의 관계에서는 갈등에 이르기 쉬운 밀도 높은 친밀관계를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다수의 친밀관계들을 통해 보완하는 관계망의 성장이 도시마을을 형성시킨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랑과 우정 사이의 경쟁, 혹은 사랑과 사랑 사이의 경쟁, 즉 수많은 미혼남녀들의 친밀관계들을 위협하는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부부관계를 기본적인 관계로 전제하고 성립된 관계망이기 때문이다.

루만은 친밀관계에서는 “다른 많은 관계들에서보다 더 행위와 관찰의 차이가 일정한 역할”⁴⁹⁾을 하며, 이로 인해 갈등으로 치닫기 쉽고 말한다. 상대를 좋아하는 행위와 상대의 행위를 체험하기 위한 관찰이 뚜렷이 구별되면서 끊임없이 교차해야만 타인의 내면성에 대한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밀관계에는 항상 애(愛)만이 아니라 증(憎)도 동반된다. 그래서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른 부부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관계로 변하기도 쉽다.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은 친밀관계의 이러한 갈등적 성격을 상대적으로 무시했고 사랑의 시간적 한계 또한 무시했다. 이러한 무시는 결국 여성의 인내를 통한 가족의 유지라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낭만적 사랑이 남성중심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했다.

남성이 육아와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공동체,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동체, 전업주부가 마을 안에서 일거리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인 친밀공동

49) N. 루만, 같은 책, 58쪽.

체라는 관계망 속에 부부관계가 있다면, 그들의 낭만적 사랑은 시간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남성중심주의로의 변질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친밀공동체 내부의 관계들도 갈등으로 치닫곤 한다. 실제로 여러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대안학교가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곤 했다.⁵⁰⁾ 하지만 친밀공동체는 일대일의 친밀관계들과는 달리 다수의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기존의 관계들이 재구성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의 유입을 통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소 교체될 수는 있지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다.⁵¹⁾

수많은 학자들과 소설가들이 낭만적 사랑을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은 우연한 만남을 필연적 관계로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판자들 자신도 대부분 한때 그러한 사랑에 몰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익명적 관계들이 지배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 그리고 그런 관계들과는 다른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한, 친밀관계에 대한 추구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정한 친밀관계를 보완하고 혁신하고 지원하는 친밀공동체는 현대 도시의 삶에서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협동하며 살아가는 데 기여한다.

V. 친밀공동체와 사회적 공공성의 관계

필자가 친밀공동체라 부르는 집단들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비판은 그것이 고학력 중산층에 국한된 공동체라는 것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다른 어린이집들과 달리 수백만 원대의 출자금을 내야 가

50) 조합원이 대거 탈퇴한 경우, 이로 인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도 있었고, 조합이 둘로 갈라진 경우도 있었다.

51) 성미산학교가 내부 갈등으로 인한 세 번의 위기를 헤쳐나간 과정에 관해서는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147쪽 이하 참조.

입할 수 있으며, 보육료 외에 조합비도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도시형 대안학교도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비가 든다. 물론 많은 사립 어린이집들이 영어교육 등 여러 가지 특기교육 비용으로 기본 보육료 이상의 돈을 걷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교육 학교를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빈곤층이 공동육아나 대안학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의 친밀공동체론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이 심각한 취업난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과 동거조차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친밀공동체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친밀공동체는 결국 폐쇄적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친밀공동체의 확산이 공적 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나 혐의 제기는 모두 일견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현실적 혹은 잠재적 비판자들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친밀공동체가 그 자체로 공공적 집단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친밀공동체들은 문턱 낮추기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새로운 친밀공동체들이 형성될 전망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친밀공동체들은 육아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여러 공동육아협동조합들은 출자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공동육아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저소득

방과후나 빈민지역 어린이 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합들의 연합기구인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저소득 공동육아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공공교에 소속된 여러 ‘지역공동체학교’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⁵²⁾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공동육아의 문턱을 낮추는데 한계를 갖는다. 공동육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민간어린이집들의 보육료 부담은 결국 국가 차원의 공공육아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교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 노력을 통해 2005년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승인받게 했으며, 어느 정도의 국비 보조도 받게 되었다. 또한 성미산마을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공공교가 운영하는 공립 공동육아의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마을 차원에서의 사회적 연대를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미산마을에서는 돌봄두레를 통해 지역 노인들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⁵³⁾, 마포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시민운동적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옆 비닐하우스촌에 서울에서 거주지를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꿀벌마을’이 형성되었는데, 2010년에 이 마을에 ‘붕붕도서관’이라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 지역공동체들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⁵⁴⁾ 지금 꿀벌마을 사람들은 함께 귀농을 준비하는 모임을 만드는 등 새로운 공동체들을 형성해나가고 있다.⁵⁵⁾

둘째, 도시마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혼 주민들이 친밀공동체들과 결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들의 형성 가능성이 보

52) 2010년 기준으로 공공교에는 61개의 어린이집, 19개의 방과후 교실, 1개의 대안초등학교, 5개의 지역공동체학교가 있는데, 지역공동체학교는 저소득층 방과후 교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교 내부의 명칭이다. 계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통권 98호, 126-127쪽 참조.

53) 유창복, 같은 책, 219쪽.

54) 붕붕도서관에 관해서는 <http://cafe.daum.net/bungbung-lib> 참조.

55)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스페셜 ‘1만명의 삶을 만나다 만민보’ 12번째 ‘꿀벌마을사람들’ 참조. <http://www.vop.co.kr/A00000284185.html>

이고 있다.

성미산마을 주변의 마포구 일대(주로 망원역, 합정역, 홍대입구역으로 둘러싸인 삼각지대)에는 2000년대 이후 여러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시민운동단체들의 공간이 생기고 있다. 홍대 근처가 청년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미산마을이라는 든든한 배후지대가 있다는 것도 이러한 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함께하는시민행동>, 이렇게 네 단체가 함께 쓰는 건물은 성미산마을과의 접촉을 위해 마을 안에 지어졌고, 이 건물 지하에는 성미산마을극장이 자리잡고 있다.⁵⁶⁾ 이런 단체들의 비혼 활동가들이 마을의 친밀공동체와 만나면서 어떤 관계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지 현재의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육아공동체에서 시작된 공동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⁵⁷⁾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친밀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련성과 이 관련성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맞서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와 오이코스의 구별로부터 시작된 공(公)과 사(私)의 구별은 현대에 들어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중세까지 공에 대립되는 부정적 가치였던 사는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는 ‘사적 소유’, ‘사리사욕’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의미이며, 이것은 공동의 것을 위협하거나 타인을 착취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의미이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사적 영역을 잘 구별하지 못할 경우, 현대 사회에서 사에 대한 공의 비판은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치닫기 쉽다. 전자의 사적 영역이 공공성의 이념,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공동의 것을

56) 유창복, 같은 책, 113쪽.

57) 필자가 얼마 전 만난 성미산마을 주민 한 사람은 마을문화, NGO문화, 홍대앞 인디문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성미산극장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념과 충돌하기 쉬운 데 반해⁵⁸⁾, 후자의 사적 영역은 공공영역과 구별되면서 상호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후자의 의미를 갖는 사적 영역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친밀성’의 영역으로 불러 전자와 뚜렷이 구별하고자 한다.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민주적 공공성의 이념을 제시한 사이토 준이치는 친밀영역과 공공영역은 분석적으로 구별되지만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⁵⁹⁾ 그리고 그는 “오히려 새롭게 창출되는 공공권의 대부분은 친밀권이 전환되어 생겨난다”고 주장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수많은 직접민주주의 실천은 “주민 사이의 ‘대화의 친밀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⁶⁰⁾ 원자력발전소, 산업폐기물처리장, 군사기지, 토목건설 등 주로 환경파괴적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의 동력이 친밀 영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친밀공동체에 기초한 한국의 도시마을도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가나 기업의 환경파괴적 사업에 대한 저항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성미산마을을 육아공동체에서 도시마을로 성장시킨 결정적 계기였던 성미산지킴이 운동은 2001년 성미산에 배수지를 건설하려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맞선 마을 주민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 서울시의 계획을 철회시키고 성미산을 생태 숲으로 유지시킨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 연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구의원 후보를 내기

58) 중세에 ‘인민의 것’, ‘공동의 것’, ‘국가의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던 공공성 개념에는 근대 초기에 독일어 Öffentlichkeit와 칸트 철학의 영향으로 열려있다는 의미, 널리 공시되어 있다는 의미 등이 더해진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여론’, ‘공론장’ 등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사이토 준이치는 오늘날 공공성 개념이 열려 있는(open), 공동적인(common), 국가공식적인(official)의 세 가지 의미가 서로 갈등하는 지형 속에 있다고 말한다.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18-20쪽 참조. 독일어 Öffentlichkeit의 개념사에 관해서는 L. Hölscher, “Öffentlichkeit”, Brunner, O., Conze, W. & Koselleck, R.(편),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4권, 413-467쪽 참조.

59) 사이토 준이치, 같은 책, 103쪽 이하 참조.

60) 사이토 준이치, 같은 책, 109쪽.

도 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홍익대의 부속학교 이전 계획에 맞서 성미산 생태 숲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⁶¹⁾ 1990년대 중 후반부터 과천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환경운동과 이를 동력으로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몇몇 진보적 시의원들 또한 그 대중적 지지기반을 공동육아와 대안학교에 두고 있다.

친밀공동체는 그 자체로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공동체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끼리 잘살자”⁶²⁾고 모인 집단이다. 하지만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공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의 사적 영역과는 달리 친밀공동체라는 사적 영역은 사회적 공공성의 요구와 양립할 수 있고 상호보완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친밀공동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공공성 실현의 중심일 수는 없지만, 공공영역의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대중적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성과 공공성의 이러한 상호 상승관계를 통해 자본주의적 사적 영역에도 맞설 수 있다. 특히 도시의 토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친밀공동체의 요구는 토지공공성의 이념에 호응하는 것이다. 친밀공동체의 여러 터전들은 해당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나름의 규칙에 따라 외부의 개인들과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즉 사적 공간이되 어느 정도 공적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간을 생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친밀공동체의 공간은 법적으로는 사적 공간이지만,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해 이용되는 사적 공간들과 달리 공적 공간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밀공동체의 터전들 중 상당수가 임대이기 때문에, 친밀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친밀공동체가 도시 공간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는 맑스주의

61) 성미산지킴이 운동이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상황에 대해서는 유창복, 같은 책, 47쪽 이하 참조.

62) 공동육아협동조합과 대안학교에서 내부의 폐쇄성에 대한 자기비판을 할 때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하는 거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철학자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로 정식화한 것들과 여러 부분에서 겹친다. 이들은 터전을 짓고 가꾸고 터전 가까이에 있는 산과 들을 가꾸면서 ‘작품’으로서의 도시 공간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터전의 세입자로서 토지의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에 대한 권리, 즉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요구하며, 도시 거주자가 도시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⁶³⁾

투 고 일: 2011. 6. 23.
심사완료일: 2011. 8. 3.
게재확정일: 2011. 8. 5.

정성훈
서울시립대학교

63) 작품으로서의 도시에 대해서는 H.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Writings on Cities*, 149쪽; 전유의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책, 155쪽 이하.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개괄한 것으로는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28쪽 이하 참조.

참고문헌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 기든스, A.,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3.
- 루만, N.,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 류경희, 김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5권 2호, 2000.
- 류경희, 김순옥, 『공동육아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가족 관계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11호, 2001.
- 맑스, K.,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권, 박종철출판사, 1991.
- 문치웅,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현재』, 제1회 인간도시포럼 자료집 『인간도시만들기, 성미산공동체에서 배우다!』, 2011.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 숄트, C.,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푸른숲, 2008.
- 아렌트, H.,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 앤더슨, B.,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3.
- 왈저, M., 『자유주의와 자연 공동체』, 『자유주의를 넘어서』, 철학과현실사, 2001.
- 유창복, 『나의 마을살이 10년-이제 마을하자!』, 『진보평론』 제43호, 2010.
-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2010.
- 이부미,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또하나의문화, 2001.
-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또하나의문화, 2007.
- 크네어, G. & 닛세이, A.,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갈무리, 2008.
- 하버마스, J.,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출판, 2001.
- Lefebvre, H., “The Right to the City”,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1996.

Luhmann, N., “Individuum, Individualität, Individualismus”, *Gesellschaftsstruktur und Semantik*, 3권, Frankfurt/M.: Suhrkamp, 1989.

Luhmann, N., *Das Rech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Suhrkamp, 1993.

Hölscher, L. “Öffentlichkeit”, Brunner, O., Conze, W. & Koselleck, R.(편),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4권, Klett-Cotta, 2004.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Intimate Communities in Modern Urban Life

Jung, Sung-Hoon

In this paper, I defend the individualistic way of life and suggest the type of communities which supplement this lifestyle. I refer to these communities as 'intimate communities'. An 'urban village' in this paper is the base of emerging intimate communities and their products. In Korea, urban villages are formed by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s, which are operated through voluntary actions. The crisis of intimate relations reliant on the semantics of romantic love can be overcome by intimate communities, which are networks of love and friendship.

The theory of intimate communities is opposed to the idea of a communal society, but not opposed to socialistic plans advocating for social publicness. The intimate sphere can be in harmony with the public sphere and have the potential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interrelationship of intimacy and publicness can control the capitalistic sphere.

Keywords: Urban Communities, Urban Village, Sungmisan Villag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s, Intimate Relations, Intimacy, Romantic Love, Publicness